

### 제주도, '입도세' 추진 ...이중과세 우려도



▲ 제주도가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분담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홀. 사진=newsje.com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가 이른바 입도세라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제주도가 계획 중인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대기오염·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분담금 형태로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입도세의 도입 주요 배경으로 급격한 관광객 증가가 꼽힌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도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 폐기물과 하수 처리를 위해 별도의 분담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6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었다.

제주시가 2017년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예측됐다. 예상되는 제주시의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 차 1,405억원, 3년 차 1,543억원, 도입 5년 차는 1,669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환경오염이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어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60대 이상 취업·창업 '역대 최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들 연령층이 지난해 창업한 기업 수도 13만개에 육박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세계일보'가 통계청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5만 2,000명 증가한 585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4년부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40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로 20% 선을 처음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61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만7,000명 늘었다. 이는 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7월 이후 최대다.

다만 고령층 취업자의 상당 부분이 정부 주도의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조기집행을 통해 지난 1분기까지 92만8,000명을 고용했다.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한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고령층은 창업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12만 9,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수치는 6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76.1%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 기업이 2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

### 작년 하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월 200만원도 못 받아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10명 중 9명은 월급 100만원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원과 조리사 취업자는 증가했고, 매장판매원은 감소했다.

18일 '연합뉴스'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천168만4천명 가운데 월급 100만원 미만을 받은 저임금 근로자는 198만명(9.1%), 100만~200만원 미만은 308만8천명(14.2%)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4명 중 1명꼴인 23.3%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셈이다.

4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478만4천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27.1%가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고, 서비스 종사자의 20.9%도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었다. 관리자 중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었고, 81.0%가 4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는 경영 관련 사무원 232만8천명(8.2%), 매장 판매종사자 163만9천명(5.8%), 직물 재배종사자 137만3천명(4.8%) 순으로 많았다.

증가 폭은 행정사무원(8만1천명)과 조리사(7만2천명)가 컸다. 배달원 수도 45만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유지했다.

매장 판매 종사자는 4만7천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비서 및 사무보조원과 영업 종사자도 각각 3만 6천명, 3만4천명 감소했다.

##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